

광주프린지페스티벌  
대인예술 야시장  
예술의 거리 별 '예술로 공동'

# 매주 토요일 빛고을은 축제

매주 토요일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3가지 축제가 광주 시민을 기다리고 있다. 5·18민주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광주프린지페스티벌'과 공동 예술의 거리 '빛나는 거리, 예술로 공동!', '대인예술야시장'을 소개한다.

◇광주프린지페스티벌  
광주를 대표하는 거리예술축제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 오는 20일 오후 2시 개막식을 열며 올해 첫 문을 연다.

매주 토요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5·18민주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한다. 올해 4회째를 맞은 프린지페스티벌은 '웃음꽃 피는 아시아'를 내걸었다.

축제는 4계절의 특색에 맞춰 주제를 나눴다. 봄의 주제는 '문화소생'이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여름에는 '아시아 문화의 물결'이라는 주제로 마임캠프, 문화나장 등을 열고 '아시아 예술 본색' (가을)이 이어진다.

개막식 하이라이트가 될 '프리뷰쇼'에서는 거리공연의 고수들이 출몰한다.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5·18민주광장에서 20여개의 공연팀이 4분씩 릴레이 공연을 선보인다.

시연회 형식으로 진행될 프리뷰쇼에는 미술공연으로 세계적 인지도를 쌓은 일본 유지 모토도 출연한다. 대만의 젊은 거리 예술가 '그린맨', 음악과 미술이 조화를 이룬 '달라이트 파플' 팀, 무대에서 그림을 그리는 '톨즈 크리에이티브'도 주목할 만하다. '히다아트컴퍼니' 팀은 현대인의 출근 과정을 3개의 장면으로 연출했고 '클라운 마임'은 관객 참여형 공연을 진행한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거리에서는 1인극을 진행하



매주 토요일 문화예술축제 '광주프린지페스티벌', '빛나는 거리, 예술로 공동!', '대인예술야시장'이 광주에서 열린다. 지난해 열린 '광주프린지페스티벌'. <광주일보 자료사진>

'4계절 테마' 프린지페스티벌 20일 개막... 日·대만팀 공연 예술로 공동, 낮·밤 행사 구분...작가와 함께 코너 등 다채 대인야시장, 길놀이 타악·마술체험 등 참여형 업그레이드

며 불특정 관객을 맞이하고 천연염색, 장식미술, 숯대 만들기 등도 마련됐다. 행사장 한편에서는 신진 미술작가들의 작품 전시도 만날 수 있다. 피크닉 공간 '오다기다 삼터'에서는 의자와 돛자리, 파라솔 등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오는 10월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를 상시 공개 모집한다. 문의 062-223-0410.

◇예술의 거리 '예술로 공동'  
공동 거리 예술축제 '어여쁘다 공동'은 '빛나는 거리, 예술로 공동'이라는 새 이름으로 출발한다.

공동 예술의 거리에서 열리는 축제는 매주 토요일 오후 2-6시 열리는 '낮' 행사와 매일 셋째주 토요일 오후 6-10시 열리는 '밤' 행사로 나뉜다. 올해 첫 행사가 열리는 오는 20일에는 오후 6시부터 예술의 거리의 예술가와 상인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새로 추진되는 프로그램으로는 '작가랑 놀아방 예가 체험'이 눈에 띈다. 작가들의 작업실에서 예술체험을 하고 매일 셋째 주 토요일에는 작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다인링 나이트'가 준비됐다. 예술의 거리 입주 작가들이 펼치는 기획전시와 만 30세 이하 청년 작가들

을 지원하는 '정촌 창작소'를 운영한다. 시민들은 예술심리 치료 프로그램 '격정 말아요 그대'와 정사초롱에 소원을 적어 걸어놓는 '소원을 말해봐', 명화와 함께하는 '예술 포토존', '아시아명화극장'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예술의 거리 곳곳에 있는 QR코드(바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미디어아트작품이 나오는 '디지털공동유럽'도 즐길거리다. 예술의 거리 상인들이 직접 마련한 먹거리와 숨은 골동품, 공예품, 아트상품을 찾는 재미도 쏠쏠하다. '빛나는 거리, 예술로 공동'은 오는 10월26일까지 열린다. 문의 062-229-0223.

◇대인예술야시장  
전통시장에서 열리는 문화축제 '대인예술야시장'은 지난 6일 열리며 올해 첫 발을 내디뎠다.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열리는 대인예술야시장 4월 주제는 '야시장 첫맛'이다.

야시장 프로그램은 초등학교생부터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전통타악연구회 두드러리'의 길놀이 타악 퍼레이드로 시작한다. 이어 김광중 작가가 시민 참여형 마술 퍼포먼스로 진행하는 '크레이지 미스터 J 이상한 마술사의 웃긴 탈출'과 이정옥씨의 '추억의 북고 뮤직' 등이 펼쳐진다. 더불어 수공예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셀러존'과 색 모래 페인팅, 길거리 마술체험, 포토존, 이색 심터 등 관객 참여 기회를 넓혔다.

시장 내 한평갤러리에서는 지역청년작가 초대전인 '환기(換氣)'(손연우·윤석문)전을 운영한다. 아트컬렉션샵 수작에서는 성혜림, 한은혜, 이재원 등 광주 작가 20여 명이 30여 점을 출품해 전시·판매한다. 문의 062-233-1420.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달항아리와 황금보리의 만남

광주 바로병원 '갤러리 바로' 5월 24일까지 김은진전

지난해 광주 첨단 2지구에 문을 연 광주 바로병원은 환자와 가족들이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작은 문화 공간 '갤러리 바로'를 오픈했다.

오는 5월24일까지 열리는 첫 번째 기획전에는 경남 마산에서 활동하는 김은진 작가를 초대했다. 30년 넘게 보리를 소재로 작업하는 김 작가는 '보리'를 아호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김 작가는 봄에 씨앗을 뿌려 가을에 수확하는 다른 작물과 달리 가을에 씨를 뿌려 봄에 거두는 '보리'를 한국인이 힘든 시절을 겪어내며 새로운 희망을 잉태하는 상징으로 봤고, 다양한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

'2019 황금보리 달항아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김 작가는 다양한 항아리와 보리가 어우러진 작품을 전시 중이다. 회화 작업과 함께 항아리를 직접 만드는 등 도예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김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접시와 항아리도 함께 선보이고 있다.

경남 남해 출신으로 대학에서 산업미술을 전공한 김 작가는 창신대에서 실용



'황금보리와 달항아리'

미술 디자인을 10년 넘게 가르쳤으며 광복 70주년 통일부 주최 통일미술대전 대상,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심사위원(공예) 등을 역임했다. 또 미술심치료 상담 1급 전문가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는 광주과학기술원 전시에서 이어 광주에서 갖는 두번째 전시다.

한편 10개층 120개 병상 규모로 개원한 광주 바로병원은 7명의 전문가가 진료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의 062-520-850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민족의 숨결 겨레의 노래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16일 문예회관

한상일 신임 지휘자가 이끄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올해 첫 공연이 오는 16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120번째 열리는 정기연주회에는 '민족의 숨결 겨레의 노래'를 주제로 김영임 명창, 민중가수 안치환 등이 출연해 국악관현악의 전통성과 대중성을 담은 무대로 꾸민다.

대중매체에서 활약하는 국악인 박애리 씨의 사회와 함께 첫 번째 무대에는 힘찬 뱃노래 가락을 국악관현악 연주한 'O·A·뱃노래'가 펼쳐진다.

이어 광주가 낳은 소리꾼 이만초, 주소연, 박지윤의 '육자배기'가 무대를 채운다. 박애리는 국악가요 '속대머리', '배 띄워라'로 국악관현악단과 협업 무대를 갖는다. 명창 김영임은 '오케스트라 쉼', '해주아리랑', '뱃노래', '자진뱃노래'를 선보인다.

이날 태평소를 바탕으로 1960년대에 새롭게 만든 악기 장새납을 만날 수 있는 무대도 마련됐다. 이영훈씨는 '웅강기나리', '열풍'을 통해 장새납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깔을 보여줄 예정이다. 황해도



김영임

안치환

무형문화재인 한명순, 박은혜, 황소연은 서도소리 '아월선유가', '간장타령', '금드령 타령'으로 다음 무대를 꾸미며 흥을 돋운다.

싱어송라이터 안치환은 국악관현악단과 만나 열정적인 무대를 만들어낼 예정이다. 대표곡 '내가 만일', '빨간 스카프를 맨 여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국악관현악 연주에 맞춰 노래한다. 마지막으로 박안지(쟁과리), 김한복(징), 신찬선(장구), 장현진(북)씨로 구성된 사물놀이팀이 경기 이남지방의 무속음악에서 비롯된 '신모듬'을 연주하며 마무리한다. 전석 1만원. 문의 062-512-5395.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국립광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학교 운영

국립광주박물관(관장 김승희)은 '제13기 광주어린이박물관학교'를 운영한다. 어린이박물관학교는 박물관과 문화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여 문화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박물관에서의 학습은 오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지정 토요일 오전 9시30-11시30분)에, 현장답사는 9월 21일에 이루어진다.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 60명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13일 입학식을 연다. 강의료는 무료.

주요 커리큘럼은 전공·주제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강의와 함께 전통문화와 연계된 놀이·미술·음악 치료 등이 접목된 흥미로운 융복합체험 학습 및 문화유적 답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박물관학교를 통해 어린이들이 미래의 새로운 문화를 꽃 피우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062-570-7068. /백성천 기자 skypark@

## 인디밴드들의 7번째 무대 '부직데이'

내일 '부드러운 직선'서

전남대 후문 공연장 '부드러운 직선' (북구 중흥동 275-4)에서 열리는 광주 인디밴드들의 모듬 공연 '부직데이'가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열린다.

이번에 7번째로 열리는 '부직데이'는 광주지역 인디 밴드들에게 공연 기회를 주기 위해 매년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다. 펑크 밴드 '투파이브'로 활동하는 베이시스트

권선제씨가 기획자로 나섰다 공연장의 주인인 박일남 목사가 공연의 음향과 대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날 공연에는 여성 2인조 '그라디'와 포스트 하드코어 계열의 록 음악을 내건 '세버디이어', 3인조 밴드 '퍼플웨이', '투파이브', '무음' 등이 출연한다. 입장료 1만 원을 내면 막걸리와 음료가 무한 제공된다. 문의 010-5760-6300.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